'인천형 평화교육'의 정의와 사례: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김진환*

Ⅰ. 머리말

Ⅱ. 난정평화교육원의 위상과 가치

Ⅲ. '한반도 평화교육'과 '인천형 평화교육'

Ⅳ.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방향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UNESCO 1945).

위 인용문은 1945년 11월 16일 런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

* 국립통일교육원 교수(E-mail: reuni21@korea.kr)
http://doi.org/10.34165/urbanr.2024..26.295

투고(접수)일 2024.11.9. 심사(수정)일 2024.12.9. 게재확정일 2024.12.18.

화기구(UNESCO) 헌장 전문(前文)의 일부분으로, 이 글에서 논의할 '평화교육'의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 해리스(Ian M. Harris)에 따르면 평화교육은 "폭력의 위협과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이다(Harris 2022, 33). 또한 해리스·모리슨(Mary L. Morrison)은 평화교육의 목표는 "인간 의식에 평화의 방법들에 대한 헌신을 창조하는 것"이라며 평화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이 의식 변화임을 분명히 했다(Harris and Morrison 2011, 28). 위 인용문의 표현을 빌려 정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려는 노력이 평화교육인 셈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인류는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평화, 따라서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평화의 사례들을 쌓았다. 평화를 위한 약속과 약속 위반을 반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가 중동의 대표 사례라면, 동아시아에서는 대결과 화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가 대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 당국은 「7·4남북공동성명」을 낳은 1970년대 초반 몇 년을 제외하면 냉전기 내내 좀처럼 화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탈냉전이 본격화한 1990년대 초반에 짧게나마 대화를 가졌다가 이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심화하면서 다시 냉각기를 보냈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에는 금강산·개성 관광,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운영 등 본격적인 협력 단계로까지 나아갔다가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또다시 대결의 시간을 보냈다. 남북 당국이 2018년에 놓은 평화의 디딤돌도 불과 1년여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2024년 10월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꾸준히 악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반도 평화 진전의 단속(斷續)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평화교육의 실패, 곧 한국사회 평화교육이 한국사회 구성원

의[1]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튼튼히 세우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평화교육은 본질적으로 즉각적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평화교육은 군사주의(militarism)[2]처럼 "수천 년간의 인간 역사를 통해 전개되어 온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대안적 의식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Harris and Morrison 2011, 50-51). 둘째, 한국사회에서는 이처럼 즉각적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평화교육조차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다.[3] 요컨대, 한국사회 평화교육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아직 이르며, 한반도 평화 진전을 바란다면 한국사회 평화교육의 성패를 성급히 논하거나 한반도 평화 진전의 단속(斷續)에 실망한 채 지내기보다는, 정주진이 "하향식으로 부과되는 평화"의 지속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강조했듯이 "대중의 역량 향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정주진, 2019, 196-197).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 '난정평화교육원'(교동도 소재)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때 매우 눈에 띄는 기관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8년 7월 '평화교육 허브(hub) 인천'을 공약한 도성훈 교육감 취임을 계기로 평화교육 활성화에 나섰고, 2022년 6월부터는 전국 교육청 최초로 "체

1) 북한사회 구성원도 당연히 한반도 평화 진전의 당사자다. 하지만, 북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화교육으로 논의를 국한할 것이다.

2) 군사주의란 "군사적 가치와 이념 및 행동양식이 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쟁과 폭력을 인간사를 관리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가치, 의견, 사회조직으로부터 나온다(Harris and Morrison 2011, 28). 군사주의의 개념, 변천 과정, 작동 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서보혁(2024) 참조.

3) 한국사회의 평화교육은 1990년대 중반에 「또 하나의 문화」, 「어린이 어깨동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비폭력평화물결」, 「평화인권연대」 등 평화교육 전문 시민단체들이 등장하면서 본격화했다. 초기에 주로 시민단체 회원 대상으로 실시되던 평화교육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학교, 공공기관, 마을 등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조정아 외 2019, 28-49).

험형 평화교육 전문기관"[4]인 난정평화교육원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난정평화교육원을 한반도 '평화교육 허브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애초 지향에 걸맞게 2024년 들어 난정평화교육원 부설 평화연구소 설립 추진, '인천형 평화교육' 개념 탐색 등 평화교육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인천일보 2022/7/10; 경인일보 2024/7/10; 한국강사신문 2024/6/7).

이 글의 목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화교육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는 난정평화교육원이 한국사회 평화교육에서 차지하는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난정평화교육원이 한국사회 평화교육 분야에서 왜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지닌 기관인지 규명하고(Ⅱ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립하려는 '인천형 평화교육'을 '한반도 평화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시론적으로 정의해 본 뒤(Ⅲ장), 이 글에서 정의한 '인천형 평화교육'에 부합하려면 현행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볼 것이다(Ⅳ장).

Ⅱ. 난정평화교육원의 위상과 가치

한반도 평화 진전을 바라는 이들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한반도 평화 열기가 식어버린 2019년 이후에도 '교실'의 평화교육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일부·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5] 2020년부터는 교사에게 통일교육 '내용' 관련 보기를

4) 난정평화교육원이 홈페이지(https://www.ice.go.kr/peace) '인사말'에서 표명한 정체성이다.

5) 2014~2023년 연도별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uniedu.go.kr) '자료마당' 메뉴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하고, 최근 1년간 교과수업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가르친 보기를 복수 선택하는 문항을 추가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2020년~2023년 교과수업 시간에 '남북 간의 평화의 중요성',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가장 많이 가르쳤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사에게 통일교육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남북 간의 평화의 중요성',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필요성' 등을 역시 1, 2순위로 선택했고,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 역시 상위권을 유지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 폭력을 줄이는 방법(남북 교류·협력, 사회적 갈등 해결 이해) 등을 꾸준히 가르친 셈이다.[6)]

물론 이러한 교육이 아무 걸림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 자료 부족, 교육목표와 방향성 혼란, 민원 발생에 대한 걱정 등은 교사들이 매년 손꼽는 통일교육 제약 조건이다(국립통일교육원 2024, 95). 또한, 교육 방법과 관련해 학생의 '희망'과 교사의 '실행' 간 큰 격차도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 2023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하고 싶다는 학생은 35.6%로 '동영상 시청' 4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생의 높은 선호는 실태조사 시작 이래 일관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5.4%에 불과했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는 교사는 겨우 2.9%에 그쳤다. 또한 교사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교육 방법을 묻자 강의(32.9%)보다 현장체험학습(34.5%)을 더 많이 선택했다(국립통

6) 이러한 현실은 교사가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표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현행 학교 통일교육이 평화교육의 한 고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기계적 구분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이 글 Ⅲ장 참조.

일교육원 2024, 73-74, 86, 91).[7] 교사들 역시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안전·시간·비용·행정 등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김진환 2023a, 166-168).

난정평화교육원의 독보적 위상과 가치는 바로 지금까지 살펴본 시대적 맥락과 교육 상황 때문에 잘 드러난다. 물론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중에서 2018년 남북 당국 화해를 계기로 평화교육을 활성화한 곳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외에도 많다.[8]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비슷하게 2022년 3월부터 기존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철원 소재)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칭하고 평화 기반 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정호성 2022). 그런데, 강원평화교육원은 1년 여만인 2023년 4월에 다시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23년 6월 한 차례 더 개칭돼 현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이하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불린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기존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포천 소재)을 2022년 5월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으로 바꿨다가 2024년 3월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으로 개칭했다. 따라서, 2024년 10월 현재 전국 광역시·도 교육청 기관 중에서 명칭에 '평화교육'이 들어가는 곳은 난정평화교육원이 유일하다.[9]

또한 강원통일교육원 현장 체험이 철원 지역 전쟁·통일 관련 유적 및 시설 탐방에 그치는 데 비해, 난정평화교육원은 '전쟁 트라우마', '혐오와 차별', '사람과 자연의 공존' 같은 특화된 주제 안에서 실내 체험과 현장 체

7) 교육 방법 관련 문항의 학생·교사 응답률은 모두 복수 선택한 결과다.

8)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가진 광역시·도 교육청 11곳 중 절반 넘는 6개 교육청이 2018년~2019년 사이에 조례를 제정했고, 해당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교육 기반 마련, 평화 감수성 제고, 학생활동 중심 평화교육 활성화 같은 목표들을 추진해 나갔다(차승주·김훈일 2020).

9) 기관 명칭은 기관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관 명칭에서 '평화'를 삭제한 것은 평화교육 전문기관 또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약화한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는 없다.

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하기 때문에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10] 끝으로, 강원통일교육원은 프로그램 참가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 및 가족으로 한정한 데 비해, 난정평화교육원은 개인, 단체 관계 없이 학생, 교직원, 시민 등 ‘모든’ 한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삼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2024;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4, 41-85).

이러한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난정평화교육원은 첫째, 한반도 평화 진전의 단속(斷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계속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둘째, 현장체험학습을 원하는 학생, 안전·시간·비용·행정 등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싶은 교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평화의식을 키우고 싶은 시민 등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갖는 기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4년 들어 모색하기 시작한 ‘인천형 평화교육’ 개념이 정립되고, 난정평화교육원이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면 한국사회 평화교육에서 난정평화교육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Ⅲ. ‘한반도 평화교육’과 ‘인천형 평화교육’

그런데, ‘한반도’나 ‘인천’ 같은 특정 지역명을 앞에 붙여 평화교육을 형용하는 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평화 다원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찬수는 평화를 “완성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폭력이 줄어드는 과정 혹은 폭력을 줄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곧 평화는 감(減)

10)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평가는 이 글 Ⅳ장 참조.

폭력 과정이다(이찬수 2016, 86; 이찬수 2019, 43). 다만 줄여나가야 할 폭력의 주된 원인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 팔레스타인, 카슈미르 등에서는 종교가,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르완다 등에서는 민족·종족이 폭력의 주된 원인이었다. 1970년대 중후반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루주의 극단적 이념이 제노사이드를 낳았고, 1970년대~1980년대 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의 권력욕이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김병로 2021, 345; 구동회 외 2010; 양재화 2023; 이찬수 외 2019). 따라서 평화는 본질적으로 대문자 단수(Peace)가 아니라 소문자 복수(peaces)이며,[11] 같은 맥락에서 폭력의 위협을 알려 감폭력 의지를 높이고, 감폭력 방법을 알려주는 평화교육 역시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Harris and Morrison 2011, 105).

그렇다면 '한반도'라는 특정 지역(local)에서 실시하는 평화교육, 곧 '한반도 평화교육'이 주력해서 줄여나가야 할 폭력은 무엇이고, 그러한 폭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 안팎에서 살아가는 코리안(Korean)이 경험하는 주된 폭력은 19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에 기인한 폭력(이하 '지정학적 폭력'),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이 초래한 '분단'에 기인한 폭력(이하 '분단폭력')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는 주변 열강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를 자기 세력권에 편입시키려는 힘, 곧 '지정학적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해 왔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처지를 외교사학자들은 '칼'과 '다리' 비유로 설명하곤 한다. 한반도가 대륙 세력에 포함되면 '해양을 겨누는 칼'이 되고, 해양 세력에 포함되면 '대륙으로 진출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이다(강만길 2013, 40). 실제로 19세기 후반부터 대륙 세력 청나

11) 이찬수는 이러한 평화의 복수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평화다원주의'로 부른다(이찬수 2019, 43). 인류의 다양한 평화 개념은 이찬수 외(2020) 참조.

라와 해양 세력 일본, 그리고 청나라가 쇠락해진 이후에는 또 다른 대륙 세력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로 몰려와서 충돌했고, 결국 한반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침략 다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수 천 년 동안 한반도에 정주하던 코리안은 '원치 않는 이산(離散)'을 대규모로 경험해야 했다. 대략 1860년대부터 농민·노동자들이 기근·빈곤·압정을 피해서 중국, 러시아, 하와이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가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은 이후에는 일터를 찾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일본, 연해주, 사할린, 러시아,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급증했다. 또한 일제 강점 말기에는 일제가 동남아시아, 중국, 태평양 등에서 벌여놓은 전쟁에 노무자로, 병사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는 아픔도 겪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반도를 떠난 이들과 그들의 후손, 곧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의 고통은 한반도 밖에서도 계속됐다. 예를 들어 재일조선인은 이주 초기부터 부당한 민족 차별에 시달렸고, 1923년 9월에는 '간토대진재'라는 제노사이드까지 겪었다.[12] 만주에 정착한 조선족은 해방 전에는 '간도참변'[13] 같은 일제의 폭력에 희생됐고, 1950년대~1970년대에는 민족 정풍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중국공산당 주류인 한족(漢族)에게 탄압받았다. 연해주·북부 사할린으로 이주한 고려인은 소련공산당이 1937년에 단행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1990년대 중앙아시아 독립국들의 민족주의 부흥에 따른 연해주 '재이주' 등을 겪으며 애써 다져놓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아픔을 겪었다. 일제가 남부 사할린으로 끌고 가 고된 노동을 강요했던 사할

12)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 발생 이후 며칠 동안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 군경과 자경단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다. '간토대진재'는 지진과 함께 대량학살이라는 인재(人災)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용어다(김응교 2023).

13) 일본군이 만주 지역 독립군 토벌을 명분으로 1920년 10월~1921년 4월에 간도 거주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린 한인의 경우는, 해방 직후 조국으로의 귀환이 일본의 방치와 소련의 출국 불허로 가로막혔을 뿐 아니라 일제 헌병·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기억까지 갖고 있다(이원용 2009).

주목할 점은 코리안을 향한 '지정학적 폭력'이 해방으로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2010년 시작한 고교 무상화 제도와 2019년 시작한 유치원·보육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사례처럼 일본 정부의 민족 차별은 여전하고, 일본 극우 집단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폭력과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14] 또한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 징용·징병자, 간토대진재 유족 등에게 진실한 사죄도, 배상도, 진상규명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 인사와 우익들의 한·일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횡포,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사회 구성원끼리의 충돌 등도 여전히 줄여야 할 '지정학적 폭력'의 목록들이다.

둘째, 19세기 후반 이후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은 앞에서 살펴본 '원치 않는 이산'뿐 아니라 '원치 않는 분단'도 낳았다. 1945년 8월에 해양 세력 미국과 대륙 세력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나눠 맡겠다는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그으면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고, 북위 38도선 이남과 이북의 정치세력이 소련과 미국의 지정학적 원심력에 휩쓸리면서 1948년 '정치적 분단'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단은 오늘날 한반도 안팎에서 살아가는 코리안에게 고통을 주는 조건이 되고 있는데, 많은 평화연구자·교육자는 이러한 현실을 '분단

14) 재일조선인은 무상화 제도 배제 같은 '제도적 차별' 외에도 한·일관계나 북·일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 같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다. 2009년 12월에 일본 우익단체가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위협적인 폭력 시위를 벌인 게 유명한 사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가 급격히 우경화하면서 일본 우익의 혐한(嫌韓) 시위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협박도 크게 늘고 있다.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은 이러한 현실을 "계속되는 식민지주의"라고 불렀다(서경식 2012, 13).

폭력'으로 개념화하면서 '분단폭력 줄이기'를 한반도 평화 진전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김병로에 따르면 분단폭력은 "지리, 체제, 민족의 3중적 분단이 한반도 구성원들에게 자행하는 생명유린과 착취 및 정신적 억압 행위" 또는 "분단으로 야기된 폭력적 활동과 구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와 담론"이다(김병로 2021, 137-138). 갈퉁(Johan Galtung)은 폭력을 전쟁 같은 '직접적 폭력', 타자에 대한 착취, 차별, 억압 같은 '구조적 폭력',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 등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부재를 '소극적 평화', 후자의 부재를 '적극적 평화'로 정의하는데(Galtung 2000, 17-33; 이병수 2017, 177-118), 김병로도 이 모델을 빌려 분단폭력을 물리적 형태(분단상황이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중대하고 부당한 인명 살상),[15] 구조적 형태(거대하게 형성된 군사대응체제, 일방적이거나 상대를 자극하는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빈부 격차 등), 문화적 형태(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학습하고 경계하며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논리와 담론 생산 활동)로 구분한다(김병로 2021, 138-143).

문아영·이대훈도 분단폭력을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특히 이들은 분단이 낳은 문화적 폭력의 "독보적" 사례로 국·공영 언론과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안보화(securitization)[16]를

15) 분단에 기인하는 물리적 폭력은 한반도 안에 사는 남북한 구성원들을 향해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한국 정부의 재일조선인 간첩 조작 등 냉전 시대 남북 간의 체제경쟁과 격렬한 대립이 재일조선인의 삶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놓는 일도 있었다(김진환 2014, 114-126). 서경식이 간파했듯이 재일조선인은 "계속되는 식민주의"와 "분단체제"로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존재다(서경식 2012, 13).

16) '안보화'란 국가 및 정부가 정보 통제, 공교육 등을 통해 특정한 대상을 적(enemy)으로 규정하고 그 적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메시지가 일상 속에 촘촘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문아영·이대훈 2019, 41).

꼽고, 안보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분단 장치들을 성찰하는 “탈분단 평화교육”을 주창한다(문아영·이대훈 2019, 29-53). 이기범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절실함”은 무엇보다 분단이 초래한 폭력적 현실을 파악해야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단폭력 인식이 바로 한반도 평화교육의 “시작”이라고 강조한다(이기범 2018, 27-30).

다만, 분단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분단폭력론 안에도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문아영·이대훈은 ‘통일’을 가능성을 내포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로 바라보는 시각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통일 개념을 앞에 내세우지 않는다(문아영·이대훈 2019, 19). 이기범도 “남과 북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을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해 평화교육이 “단일 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당위는 일단 접어두자고 제안한다(이기범 2018, 47). 아일랜드섬과 한반도의 탈분단 과정을 비교한 구갑우 역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설계가 통일로 제시될 때, 어떤 통일인가를 둘러싼 갈등의 전환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아일랜드섬이 보여준 “탈식민적 공존”을 “탈분단의 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구갑우 2012, 221).

이들과 달리 김병로는 “서로 싸우지 않도록 분리된 상태에서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분단평화)의 소극성과 제한성을 지적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통일평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병로 2021, 146-153). 서보혁도 한국사회에서 “분단을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는 판단하에 경쟁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적대 관계의 구조적 종식, 대결적 분단을 조건으로 삼은 분단폭력의 완화 등은 통일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서보혁 2016, 286-290).

김병로와 서보혁이 주장하듯이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추구

하는 행위(이하 '평화통일 노력')은 분단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국가의 "자기 방어적 법해석"[17] 또는 근대국가의 '정체성 정치'에 따른 폭력을 줄일 수 있다. 이찬수는 국가 구성원의 '우리'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근대국가의 속성이 타자를 향한 폭력을 낳는다고 보는데(이찬수 2019, 23-26), 서로 다른 '우리' 정체성을 강화하며 싸우던 두 근대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향해 '평화적으로' 나아간다면 폭력의 발생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 당국과 민간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2018년 한 해 동안 '평화통일'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당국 회담과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한 결과 한반도의 직접적·물리적 폭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나아가 평화통일 노력은 '지정학적 폭력'의 감소라는 또 다른 '순기능'도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조선과 대한제국 지배 세력은 자주적이고 응집된 태도로 '지정학적 원심력'에 대응할 '구심력'을 키우기보다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후원을 기대하며 분열했다. 광복 직후 북위 38도선 이남과 이북의 정치세력 역시 '이념' 차이를 내세우며 소련과 미국의 지정학적 원심력에 대응할 구심력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와 달리 남북 당국과 민간이 평화통일 노력으로 구심력을 키워간다면,[18] 지정학적 폭력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19] 또한 평화통일 노력은

17) 김병로는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한이 합법적인 힘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명백하게 따질만한 근거가 불확실하며 대개는 자기 방어적 법해석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한다(김병로 2021, 149).

18) 현행 대한민국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을 이룩한 뒤, 하나의 국가를 완성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다. 하나의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구심력' 키우기라면, '남북연합'은 '낮은 수준의 구심력' 키우기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진환(2023b) 참조.

19) 예를 들어 냉전 시대 재일조선인 사회는 남한을 지지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세력과 북한을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세력으로 나뉜 채 이념 대립을 계속했고, 일본 정

‘미래’에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원심력에 휩쓸려 과거나 현재 같은 고통을 반복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남북이 자주적 통합력을 높여나갈수록 한반도 주변 열강이 지정학적 원심력을 발휘할 토대가 약화하기 때문이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면, ‘한반도 평화교육’은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과 분단에 따른 폭력의 위협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진전 의지를 키워주고, 이러한 폭력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실제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안점(중심 목표)을 갖는다. 첫째, 한반도 안팎 코리안을 향한 폭력이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과 분단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 노력이 분단폭력과 지정학적 폭력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20] 셋째, 한반도 분단과 평화통일 모두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과 깊이 관계돼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한반도 평화교육의 3대 키워드는 ‘지정학’, ‘분단’, ‘통일’이다.

‘인천형 평화교육’은 지금까지 개념화한 한반도 평화교육의 일환답게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locality)를 내재한(embedded)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1] 로컬리티는 ‘지역성’ 또는 ‘국지성’으로 번역되는데 이 글에서는 로컬리티를

부는 이러한 대립을 틈타 민족 차별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통일 노력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통합력을 키워줌으로써 일본 정부의 민족 차별에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준다.

20)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한반도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21) 윤철기도 인천 평화교육의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 지정학적 위치, 생태환경 등 지역의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화교육의 현지화(localization)”를 제시했다(윤철기 2022, 22).

번역하지 않고 주로 로컬 기억[22]이나 로컬의 미래 구상 등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지는 로컬의 장소성(placeness)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김진환 2022, 200). 그렇다면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는 무엇일까?

첫째, '지정학'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 인천은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이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전개된 도시다. 이미 병인양요, 신미양요로 몸살을 앓은 강화도·영종도는 일본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과 영종진 침공(1875년), 일본이 청나라 견제를 위해 조선에 강요한 '조일수호조규' 체결(1876년) 등을 잇달아 겪었다. 1883년 개항 이후 제물포에서는 각각 조계지를 둔 일본과 청나라의 경쟁이 펼쳐졌고, 제물포 앞 월미도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 시설이 경쟁하듯 들어섰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시작을 알린 전투 장소도 월미도 앞바다였고, 일제 강점기 월미도는 일제 군사기지이자 '제국의 유원지'로 전락했다. 제물포에서 멀지 않은 부평에도 각종 무기와 보급품을 만드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 설치됐고(1939년), 성공회 강화성당 계단의 철제 난간과 동종(銅鐘)이 일제의 전쟁 물자로 뜯겨나가기도 했다.

또한 인천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의 이권 개입, 연이은 가뭄, 일본의 쌀 대량 반출 등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코리안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처음 떠난 곳이 바로 제물포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제물포 옆 월미도에 자리한 것도 이러한 장소성 때문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1903년 1월부터 1905년 8월까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

22) 장세룡은 기억의 층위를 개인 기억, 가족 기억, 로컬 기억, 국가 기억 등으로 구분하면서 "로컬 기억은 국민국가의 기억을 대부분 답습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과 의사소통적으로 결합하고 신화적 요소의 영향력이 적다"고 지적한다(장세룡 2018, 314-317).

한 코리안 7,415명의 생활과 애환뿐 아니라 이들이 하와이에서 펼친 독립운동, 임시정부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한반도와 하와이 거주 동포들의 인연은 해방 이후 인하공과대학(현 인하대학교) 설립(1954년)으로도 이어졌다. 대학 이름에 인천의 인(仁)자와 미국 하와이주의 하(荷)자를 음차해 넣은 이유는 하와이 거주 동포들이 조국 발전을 염원하며 모은 15만 달러가 대학 설립 자금으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2023년 신설된 '재외동포청'이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인천 송도에 자리 잡은 것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도시'라는 인천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요소다.

둘째, '분단'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 인천은 남과 북의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한반도에서 가장 격렬하게 경험하는 도시다. 분단 이후 인천이 겪은 전쟁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끝이 아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품고 있는 인천은 휴전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남북 군사 충돌, 예를 들어 세 차례(1999년, 2002년, 2009년)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2010년) 등을 경험했고, 서해 접경지역 섬들의 주민대피소(방공호)가 상징하듯 여전한 군사적 긴장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도시다. 또한 교동도의 망향대, 대룡시장 등은 황해도 연백 지역에서 피난 온 전시(戰時) 이산가족의 상처와 그리움이 배어 있는 공간이고, 월미도는 인천상륙작전 전에 연합군이 인민군을 무력화하겠다며 실시한 폭격에 희생된 주민들의 슬픔이 새겨진 공간이다. 끝으로 강화도에서는 휴전 직후 반공·반북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절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조봉암도 떠올릴 수 있다. 요컨대, 인천은 현재와 과거의 분단폭력을 모두 성찰하며 평화 진전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도시다(권기봉 외 2021, 15-39; 김진환 2023c, 143-218; 김현석 2019, 23-35; 강변구 2017; 한홍구 2009, 140-144).

셋째, '통일'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 인천은 통일을 통해 바닷길을 다시 잇고, 약화하는 삶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도시다. 동해 접경지역인 고성

이나 속초도 분단으로 바닷길이 끊어지고 어업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인천은 서해 5도, 강화도, 교동도 같은 '섬' 때문에 동해 접경지역과는 다른 장소성을 갖고 있다. 서해 5도, 강화도, 교동도 등은 분단 이전에 실핏줄 같은 바닷길을 통해 인천과 황해도의 사람과 물건이 오가던 일상적인 교류 통로였고(고제민 외 2020; 이호진·정민섭 2020, 63-150), 서해 5도는 1960년대까지는 조기, 그 이후에는 꽃게라는 특정 어종에 주력하는 어업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인천과 황해도 사이의 일상적 교류뿐 아니라 조기떼를 찾아다니던 어부의 길까지 끊었고,[23]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고조된 북방한계선 인근 긴장은 서해 5도 주민의 생계 수단인 꽃게잡이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천이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화통일 열망을 더 크게 품고 키우는 건 타당한 일이고, 실제로 인천은 '평화통일 선도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이었다(황복순·이지윤 2020).

결론적으로, '인천형 평화교육'은 한반도 평화교육의 일환답게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이 벌인 지정학적 갈등의 본무대(本舞臺),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쟁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도시, 통일로 바닷길을 다시 열고 삶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도시 같은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를 내재한 평화교육이다. 그렇다면 인천 평화교육의 중심 기관인 난정평화교육원의 현행 프로그램은 이 글에서 정의한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을 잘 추구하고 있고, 더불어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를 잘 담아내고 있을까?

23) "조기잡이 섬으로 명성을 떨치던 연평도는 어장의 축소와 조기 어군의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6.25전쟁으로 조기어장도 남북으로 나뉘었다. 조기떼를 따라 남한의 선박이 NLL(북방한계선)을 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어선의 월선을 막기 위해서 1968년 어로저지선을 설정하였고, 그만큼 연평어장은 축소되었다"(김창일·유창호 2018, 145).

Ⅳ.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방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에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교동도 평화교육자원 조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고(남근우 외 2021),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2022년 6월부터 평화체험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1년 동안은 숙박 시설 미비로 총 4종의 1일형 프로그램만 운영하다가, 숙박 시설이 완공된 2023년 7월부터 1일형 프로그램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게 됐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운영 프로그램을 총 9종으로 다양화했고([표 1]), 2024년 들어서는 시민 대상 프로그램, 전시관 활용 프로그램 등을 또 한 차례 늘려 현재는 총 1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표 2]).

교육원 프로그램은 교육동에서 이루어지는 실내 체험 교육(예술 평화 활동, 신체 평화 활동, 평화 독서 활동, 토의 토론 활동, 평화 창작 활동), 전시관 체험 교육(평화 의미 찾기, 평화 공간 상상, 평화 여행 계획, 평화 동물 만들기, 세대 간 평화 이음), 교동도 내 현장 체험 교육을 혼합한 형식이다. 1일형은 오전 실내 체험과 전시관 체험, 오후 2회 현장 체험으로 짜여 있고, 숙박형은 첫째 날 오전 실내 체험 1회, 오후 실내 체험 1회와 현장 체험 2회, 둘째 날 오전 실내 체험 1회, 오후 현장 체험 1회로 이루어져 있다. 현장 체험 교육 장소는 교동 논길 및 주민대피소(방공호), 망향대 및 철책선, 박두성 생가터, 대룡시장, 난정저수지 및 철책선, 고구저수지, 화개산, 화개사, 교동향교, 비석군, 교동포구, 교동읍성 등이고, 교육원은 이 장소 중에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요소'에 맞게 몇몇 장소를 선택해 현장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24)]

24) 이하 소개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요와 상세한 교육 활동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3;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4) 참조.

[표 1]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개요 I (2023. 7.~2023. 12.)

제목(대상/시간)	내용(주요 내용 요소)	교육 장소
순덕이의 피난 일기 (초등 5~6학년/ 1박2일·5시간)	교동도 실향민 이순덕 할머니의 피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아픔을 공감하고 평화의 소중한 느끼기(전쟁, 폭력)	망향대, 주민대피소, 대룡시장, 교육원
오순도순 제비처럼 (초등 5~6학년/ 1박2일·5시간)	교동도의 사계절이 살아 있는 화개산 및 고구저수지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교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생태공존 방법 모색하기(공존)	화개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시선, 경계를 넘어 (중·고등/1박2일·5시간)	망향대에서 바라본 실제 북한의 모습을 통해 편견을 확인하고 박두성 생가에서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차별과 극복 사례를 찾고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기(차별, 혐오)	망향대, 박두성 생가, 대룡시장, 교육원
대룡시장 사람들 (중·고등/1박2일· 5시간)	대룡시장 탐방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찾고 화개산을 탐방하며 생태적 다양성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 속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 실천하기(다양성)	박두성 생가, 화개산, 대룡시장, 교육원
리더는 필요해 (학생자치회/ 1박2일·5시간)	공동체놀이를 통해 배려, 존중,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기 위한 역할 모색 및 실천 다짐하기(갈등, 공존)	향교(비석군), 대룡시장, 교육원
뒤물이 마을 이야기 (시민/1박2일·5시간)	교동도 난정저수지 형성 과정에서 수몰된 뒤물이 마을과 소나무 이야기를 통해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기(갈등)	난정저수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평화를 함께 「읽·걷·쓰」 (시민/1박2일·5시간)	평화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교동도의 철책선을 걸으면서 평화와 공존 방법을 사색하며 함께 글쓰기(공통)	난정저수지 및 철책선, 화개산, 고구저수지, 교육원
평화로운 가(家) (초등학생 이상 자녀 포함 인천 관내 가족/ 1박2일·5시간)	대룡시장과 망향대 속 실향민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가족의 평화 이야기 나누기(갈등, 공존)	망향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평화 산책 (시민/2시간)	미디어아트, 평화여행 상상, 평화 동물 만들기, 세대 이음 평화공간 등 난정평화교육원 전시관 탐방	교육원 전시관

[표 2]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개요 II (2024)

제목(대상/시간)	내용(주요 내용 요소)	교육 장소
오순도순 제비처럼 (초등 5~6학년/ 1박2일·5시간)	교동도의 사계절이 살아 있는 화개산 및 대룡시장에서 생태 탐방, 교동도의 계절별 다양한 동·식물과 교감 체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생태와 공존하기 위한 방법 모색(공존)	화개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순덕이의 피난 일기 (초등 5~6학년·중등/ 1박2일·5시간)	교동도 실향민 이순덕 할머니의 피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아픔 공감, 모의 전쟁 상황 중 대피 체험(방공호)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 느끼기, 망향대 속 실향민 이야기를 통해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길 모색(전쟁, 폭력)	망향대, 주민대피소, 대룡시장, 교육원
시선, 경계를 넘어 (중·고등/1박2일· 5시간)	망향대에서 바라본 실제 북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진 편견 체험, 박두성 생가에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극복의 사례 탐방, 우리 사회 속 편견·혐오·차별에 대한 사례를 찾고 개선 방안 탐색(차별)	망향대, 박두성 생가, 대룡시장, 교육원
대룡시장 사람들 (중·고등/1박2일· 5시간)	대룡시장을 직접 탐방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찾고 공유, 화개산을 직접 탐방하며 생태적 다양성 찾고 공유, 우리 사회 속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 다양성 존중의 실천 논의(다양성)	박두성 생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리더는 필요해 (학생자치회/ 1박2일·5시간)	체육 연계 협력놀이를 통해 배려·존중·의사소통의 중요성 체험, 다양성 존중 공간[대룡시장, 화개산] 체험을 통한 리더 역량 함양,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기 위한 역할 모색 및 실천 다짐(갈등, 공존)	교동향교(비석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평화의 숨 (시민/1박2일· 5시간)	화개산 오솔길을 걸으며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탐방, 대룡시장 탐방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 방법 모색하고 실천(공존)	화개산 오솔길, 대룡시장, 교육원
평화의 바람 (시민/1박2일· 5시간)	교동도 포구와 바닷길을 걸으며 섬이 주는 자연환경 탐방, 철책선으로 둘러싸인 바닷길을 걸으며 관계의 중요성 실감, 대룡시장 탐방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 방법 모색하고 실천(공존)	포구 (동진포~월선포), 대룡시장, 교육원
뒤물이 마을 이야기 (시민/1박2일· 5시간)	교동도 난정저수지 형성 과정에서 수몰된 뒤물이 마을과 소나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물' 갈등의 난정저수지와 고구저수지 탐방, 대룡시장 속 실향민과 원주민의 평화적 갈등 해결의 장소 탐방, 교동의 평화적 갈등 해결 미담을 통해 일상의 갈등 해결 방법 모색(갈등해결)	난정저수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제목(대상/시간)	내용(주요 내용 요소)	교육 장소
평화를 함께 「읽·걷·쓰」 (시민/1박2일·5시간)	평화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교동도의 철책선을 걸으면서 평화와 공존 방법을 사색하며 함께 글쓰기(공통)	대룡시장, 화개산, 박두성 생가, 난정저수지, 교육원
평화로운 가(家) (초등학생 이상 자녀 포함 인천 관내 가족/ 1박2일·5시간)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우리 가족의 평화 이야기 나누기, 대룡시장과 망향대 속 실향민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기(갈등, 소통, 가족 평화문화 진단)	대룡시장, 망향대, 고구저수지, 교육원
가족 애(愛) 소통 (초등학생 이상 자녀 포함 인천 관내 가족/ 1박2일·5시간)	화개산과 대룡시장을 탐방하며 가족과 협력하며 문제 해결 경험, 가족의 덕목을 찾아가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가족 평화실천 다짐(갈등, 협동, 소통)	화개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교육원
평화 산책 (시민/2시간)	미디어아트, 평화여행 상상, 평화 동물 만들기, 세대 이음 평화공간 탐방, '평화생각'에 대한 감상평 또는 사진 남기기	교육원 전시관
개성 있는 개성 여행 이야기(시민/2시간)	과거의 인천과 일상적으로 교류했던 개성 지역에 대한 탐구, 개성 있는 여행 계획을 작성하며 평화로운 일상의 회복과 미래 상상	교육원 전시관
평화의 벗, 미션 탐험대 (시민/1시간)	관람객 중심의 전시탐방관 미션 수행을 통해 전시관 내용 파악	교육원 전시관

이처럼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크게 두 차례 개선을 거치면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교육원 프로그램은 네 가지 주목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동도 실향민의 전쟁 트라우마 체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인 「순덕이의 피난 일기」, 「평화로운 가(家)」, 「가족 애(愛) 소통」 등은 한국전쟁기 이산과 실향, 휴전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그로 인한 상시적 불안 같은 직접적 폭력을 교동도 사람들의 경험과 현실을 매개로 인식하게 해 주고, 이를 통해 평화를 염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의 통일교육이 '민통선 사람들', 서해 5도 사람들 같은 개인과 로컬의 목소리에 다가가는 것보다는 주로 국가의 공식 기억을[25] 전달함으로써 전

25) 국가의 공식 기억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국가가 세운 기념관, 전시관, 국립묘지 등이다(김진환 2023a, 171-174).

쟁의 폭력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난정평화교육원은 이순덕 할머니 같은 개인이나 대룡시장 같은 로컬의 기억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전쟁의 폭력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셈이다.

둘째, 교육원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연계성[26]을 간과하지 않고,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감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훈맹정음'을 창안해 시각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한 박두성 이야기,[27] 교동도 원주민과 황해도 실향민의 갈등과 화해 등을 중심에 배치한 프로그램인 「시선, 경계를 넘어」, 「대룡시장 사람들」, 「리더는 필요해」, 「뒤물이 마을이야기」 등은 '북한'을 포함한 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타자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 같은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역시 교동도 사람들의 경험과 현실을 매개로 성찰하게 해 주고, 나아가 이러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교육원 전시관은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에 초점을 맞춘 명실상부한 '로컬 평화전시관'이다. 먼저 전시관 입구 라키비움(larchiveum)에서 교동도 사람들의 오래된 사진들, 교동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표현한 문장, 교동도 각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 그림 등을 만난 뒤, 1관(평화의 공유지를 위한 상상)에 들어서면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선, 그 경계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을 공간으로, 경계를 공유지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2관(이곳에서 우

26) 갈퉁은 세 폭력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필자의 입장은 절충적이지만, 인과 관계를 따져볼 때 문화로부터 정치와 경제를 통해 군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번지는 것이다"(Galtung 2000, 20).

27) 1888년 교동도에서 태어난 박두성은 1913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취직한 뒤 생을 마칠 때까지 시각 장애인 교육에 매진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1926년에 '또 하나의 한글'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한국어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한 것이다(김진환 2023c, 193-195).

리가 여행자로 만난다면)은 분단으로 경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천과 개성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했는지, 당시 인천과 개성의 주요 여행지는 어디였는지 등을 알려주고 여행 계획도 세워보게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일상을 나누는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 준다. 끝으로 3관(날개 달린 고래와 함께 살아가기)은 사람들이 서해와 한강하구를 자유롭게 오가는 날 그곳의 생태계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체험 놀이를 통해 생각하는 공간이다.[28] 「평화 산책」, 「개성 있는 개성 여행 이야기」, 「평화의 벗, 미션 탐험대」 같은 프로그램은 이상 살펴본 전시관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넷째, 갈퉁은 환경파괴(Ecocide)를 "자연에 대한 극단적 폭력"으로 규정한다(Galtung 2000, 85). 따라서 환경파괴를 줄이는 방법(적정 기술,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교육 역시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Harris and Morrison 2011, 109-110). 교육원 역시 전시관 3관에서 명백히 드러냈듯이 사람과 사람의 공존과 더불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평화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추구한다. 「오순도순 제비처럼」, 「평화의 숨」, 「평화의 바람」 등 교동도의 잘 보존된 생태계를 체험하며 사람과 자연의 공존 의지를 키우는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지향이 잘 담겨 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본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이 명실상부한 '평화교육 허브 기관'으로 발전해 가려면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 적극 추구', '인천 평화 관련 로컬리티의 포괄적 내재화'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원 평화교육 역시 한반도 평화교육의 일환이기에,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

28) 3개 전시관 관람을 마치면 곧이어 '난정관'으로 불리는 공간에서 난정마을의 역사, 1935년부터 2019년까지 난정초등학교의 추억 어린 발자취 등도 알아볼 수 있다(김진환 2023c, 188-190).

를 들어 「순덕이의 피난 일기」는 이산과 실향을 낳은 한국전쟁의 폭력성,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한 불안 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그렇다면 한국전쟁은 '왜' 발생했는지, 이산과 실향을 초래했고 지금도 여전히 방공호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전쟁'을 한반도에서 끝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평화통일 노력이 이산과 실향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시적 불안을 낮추는 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유로까지 참가자들을 적극 안내하지는 않는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라면 담아야 할 핵심 교육 요소를 '폭력의 원인 이해', '폭력의 양상 인식과 성찰', '폭력의 해법 찾기'로 본다면, 「순덕이의 피난 일기」는 이 요소 중에서 두 번째 요소에만 치우쳐 있는 셈이다.

「순덕이의 피난 일기」와 달리 「시선, 경계를 넘어」는 '폭력의 양상 인식과 성찰', '폭력의 해법 찾기'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지만, 역시 '폭력의 원인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날 오후에 망향대에서 북한 사진을 보고 느낌을 말하면서 '숨은 혐오 찾기'를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나아가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혐오는 '왜' 발생하는지, 한반도 분단이 북한에 대한 혐오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하는지 등에 대한 사유로까지(김태형 2019; 구본권 2020) 참가자들을 적극 안내하지는 않는다.

한편, 「시선, 경계를 넘어」는 차별을 성찰하는 실내 놀이('한 걸음 더'), 박두성 생가터 체험 등을 통해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줄일 가치관과 역량을 키워주려 노력하고는 있는데, 리어든(Betty Reardon)의 지적처럼 한반도에서의 직접적 폭력 감소가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줄여나갈 가치관과 역량을 키우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9] 평화통일 노력이 북한에 대한 혐오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

29) 리어든은 갈퉁이 말한 '소극적 평화'를 '기초적 토대로서의 평화(foundational peace)'로 부르며, 그로부터 적극적 평화가 내포하는 정의와 공평의 조건들이 살아 있고 진화하는

한 혐오와 차별을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인식하도록 돕는 것도 「시선, 경계를 넘어」에 담으면 좋을 교육 요소라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원의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분단', '통일' 같은 한반도 평화교육의 키워드와 좀 더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비무장지대(DMZ)의 수많은 무기와 철책선, 남북을 관통해 흐르는 임진강과 북한강에 가로놓인 댐 등은 한반도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했고,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대규모 자연재해(남북 접경지역 홍수, 대형 산불, 수목 병충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분단 탓이다(대북민간협력단체협의회·엄주현 2023). 또한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발생한 재난이 남북관계의 관성에 의해 남한 또는 북한 문제로 한정되거나 통제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한반도적 위기로 치달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병로 2021, 222-223). 교동도의 잘 보존된 자연에서 받은 감동이 앞에서 말한 한반도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법 찾기로까지 이어지게끔 적극 안내하는 것도 교육원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 중 하나다.[30]

둘째, 교육원 프로그램은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로컬리티는 현행 프로그램에 잘 담겨 있다. 전시관 활용 프로그램인 「평화 산책」, 「개성 있는 개성 여행 이야기」, 「평화의 벗, 미션 탐험대」, 그리고 교동읍성에서 과거 해상교통 중심지였던 교동도를 떠올리고, 교동도 포구(동진포, 월선포)를 걸으며 바다가 철책선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교동도 포구는 어떤 모습일

상태로 자라날 수도 있다고 본다(Reardon 2021, 42-43).

30) '한국DMZ생명평화동산'(인제 소재)은 이 글에서 말한 '생태교육과 분단·통일의 접목'이라는 과제를 강의, 생태체험, 문화체험, 현장탐방을 결합해 선도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창립선언문에 담긴 이 기관의 목표는 전쟁, 대결, 죽임, 차단으로 상징되는 DMZ 일원을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https://www.dmzecopeace.com/).

지 상상하는 「평화의 바람」 등은 통일로 바닷길을 다시 잇고 약화하는 삶의 터전을 다지는 도시라는 로컬리티를 내재화했다. 또한 「순덕이의 피난 일기」, 「평화로운 가(家)」, 「가족 애(愛) 소통」 등에는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쟁 실향(失鄕)의 고통을 증언하는 도시라는 로컬리티가 잘 담겨 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이 벌인 지정학적 갈등의 본무대(本舞臺),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 등도 인천형 평화교육이라면 반드시 내재화해야 할 로컬리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원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쉽다. 이러한 아쉬움은 현행 프로그램의 실내 체험이나 현장 체험에 교육 요소를 추가하거나, 현장 체험 장소를 교동도 '밖'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덕이의 피난 일기」, 「평화로운 가(家)」, 「가족 애(愛) 소통」 등의 실내 체험이나 현장 체험의 교육 요소로 '폭력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또 다른 순덕이 상상하기'를 추가하면, 참가자들이 구한말 제국주의 침탈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형성, 한국전쟁기 이산과 실향, 그리고 전후 북한이탈주민으로까지[31] 이어지는 코리안 이산과 실향의 역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숙박형 프로그램의 현장 체험 장소를 교동도 바로 옆 '강화도'까지 넓혀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연무당 옛터에서 제국주의의 폭력성 인식하기', '성공회 강화성당에서 한·일 화해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권기봉 외 2021, 23-25), '조봉암 생가터와 추모비 앞에서 냉전기 분단폭력 성찰하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의 노력 알아보기', '망향대와 강화평화전망대 비교 체험으로 국내 북녘 전망대 중 유일하게 실향민이 만든 전망대인 망향대의 가치 이해하

31)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2,988명)에는 경기도(11,080명), 서울특별시(6,391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다.

기'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인천 평화 관련 로컬리티의 포괄적 내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교육원은 평화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원과 시민을 평화교육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교원 기본과정의 경우 최장 5일 동안 진행된다(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4, 35-36).[32]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현장 체험 교육을 교동도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제물포, 월미도 등으로도 찾아간다면 구한말 인천에서 전개된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대결, 하와이로 떠난 첫 코리안 이민자들의 애환과 희망, 인천이 겪은 격렬한 전쟁(인천상륙작전)의 상흔,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월미도 사람들의 아픔 등 인천의 다채로운 평화 관련 로컬리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인천형 평화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33]

V. 맺음말

2024년 10월 현재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하다. 2024년 5월부터 한반도 상공에서는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들이 북으로 보내는 전단 풍선과 북한 당국이 남으로 보내는 오물 풍선이 하루가 멀다고 떠다니고, 북한 당국의 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 이에 맞서는 남한 당국의 군사력 시위도

32) 2023년에는 5일간(8월 8일~12일), 2024년에는 3일간(8월 6일~8일) 진행했다.

33) 이 글에서는 난정평화교육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헌, 필자가 난정평화교육원과 교동도를 답사하며 관찰한 내용 등을 자료로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러한 자료에 더해, 프로그램 참가자들(학생, 교사, 시민 등)의 평가 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운영 담당자 인터뷰 결과 등도 활용한다면 프로그램 개선 방향의 구체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프로그램 개선 방향의 구체성과 설득력 제고, '새로운' 프로그램 예시 등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폭력적·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폭력의 위협과 평화로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의 가치,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의 평화교육 기관이 멈칫하고 있을 때도 꾸준히 걸음을 내딛고 있는 난정평화교육원의 위상과 가치가 두드러진다.

이 글은 난정평화교육원이 이러한 위상과 가치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 또는 한국사회 전반의 평화교육을 활성화하는 진짜배기 '평화교육 허브 기관'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형 평화교육의 시론적 정의, 인천형 평화교육의 시각에서 본 현행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 같은 과제를 안고 출발했고, 현재까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형 평화교육은 한반도 평화교육의 일환답게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이 벌인 지정학적 갈등의 본무대(本舞臺),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쟁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도시, 통일로 바닷길을 다시 열고 삶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도시 같은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를 내재한 평화교육이다. 이러한 인천형 평화교육의 시각에서 볼 때, 현행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은 분단과 전쟁에 기인한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위협을 포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쟁 트라우마, 전쟁의 현존성, 바닷길의 상실 같은 로컬리티를 충실히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난정평화교육원이 명실상부한 '평화교육 허브 기관'으로 발전해 가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과 '분단'이 코리안이 경험하는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주된 원인

이라는 점, 평화통일 노력이 분단폭력과 지정학적 폭력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가자들이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요소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현행 프로그램의 실내 체험이나 현장 체험에 교육 요소를 추가하거나, 현장 체험 장소를 교동도 '밖' 인천 곳곳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이 벌인 지정학적 갈등의 본무대(本舞臺),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 같은 로컬리티까지 포괄적으로 품어나가야 한다.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이제 막 싹을 틔운 인천형 평화교육이 경기형 평화교육, 강원형 평화교육, 경북형 평화교육, 충청형 평화교육, 부산형 평화교육, 제주형 평화교육 같은 로컬 평화교육 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참 고 문 헌

갈퉁, 요한(Galtung, Johan). 2000.『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서울: 들녘.

강만길. 2013.『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서울: 선인.

강변구. 2017.『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 작은 섬 월미도가 겪은 큰 전쟁들』. 서울: 서해문집.

고제민·김경은·김문선·김푸르나·나여랑·양진채·윤대희·이재은. 2020.「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남북을 잇다, 평화가 있다」. 인천광역시.

구갑우. 2012.「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한국과 국제정치』 28(3): 189-227.

구동회·이정록·노혜정·임수진. 2010.『세계의 분쟁: 지도로 보는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서울: 푸른길.

구본권. 2020.『북한 뉴스 바로 보기: 인포데믹 시대에 북한 뉴스 읽기』. 서울: 열린책들.

국립통일교육원. 2024.『2023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통일교육원.

권기봉·김진환·한모니까. 2021.『대한민국 평화기행』. 서울: 창비.

김병로. 2021.『한반도발 평화학: 통일이 평화를 만나다』. 서울: 박영사.

김응교. 2023.『백년동안의 증언: 간토대지진, 혐오와 국가폭력』. 서울: 책읽는 고양이.

김진환. 2014.「재일조선인과 통일: 두 가지 고정관념에 대한 단상」. 지구촌동포연대 엮음.『차별을 딛고 꿈꾸는 아이들 조선학교 이야기』. 서울: 선인. 113-126.

_____. 2022.「로컬에서 만나는 평화: 한 평화·통일교육자의 평화답사 단상」.『평화들 PEACES』 1(2): 189-206.

_____. 2023a.「국립묘지로 떠나는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 망향의 동산과 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20(2): 165-198.

_____. 2023b.「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약사: 남북연합 논쟁을 중심으로」.『북한학연구』 19(2): 195-233.

_____. 2023c.『섬으로 간 전쟁, 섬에서 만난 평화』. 서울: 열린책들.

김창일·유창호. 2018.『조기의 섬에서 꽃게의 섬으로 연평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김태형. 2019.『혐오시대 헤쳐가기: 심리학으로 본 북한 혐오』. 서울: 열린책들.
김현석. 2019.『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울: 선인.
남근우·권기태·윤주현. 2021.「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동도 평화교육자원 기초조사」. 인천연구원.
대북민간협력단체협의회·엄주현. 2023.『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 서울: 열린책들.
리어든, 베티(Reardon, Betty). 2021. 강순원 옮김.『포괄적 평화교육』. 서울: 살림터.
문아영·이대훈. 2019.『분단체제를 살아내며 넘나드는 탈분단 평화교육』. 서울: 더슬래시.
서경식. 2012.『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서울: 반비.
서보혁. 2016.「분단폭력의 본질과 그 너머」. 김병로·서보혁 편.『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서울: 아카넷. 281-291.
_____. 2024.『군사주의: 폭력의 이데올로기와 작동방식』. 서울: 박영사.
양재화. 2023.『다크투어, 내 여행의 이름』. 서울: 어떤책.
윤철기. 2022.「해외 평화교육의 현황과 인천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인천 평화교육 포럼(2022년 11월 10일) 발표자료.
이기범. 2018.「남북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상상력이 살아나는 평화교육」. 이기범 외.『한반도 평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살림터. 17-52.
이병수. 2017.「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시대와 철학 28(1)(2017): 113-142.
이원용. 2009.『사할린 가미시스카 한인학살사건 I』. 서울: 북코리아.
이찬수. 2016.『평화와 평화들: 평화다원주의와 평화인문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_____. 2019.「분쟁의 심층: 정체성 갈등과 평화의 논리」. 이찬수 외.『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서울: 모시는 사람들. 15-46.
이찬수·김혜경·강성우·김선·류경희·김준·서보혁·김병로·이원삼·박구병·김광수. 2020.『세계평화개념사: 인류의 평화 그 거대담론의 역사』. 서울: 인간사랑.
이찬수·홍미정·김재명·김영미·이문영·김철민·구갑우. 2019.『세계의 분쟁: 평화라는 이름의 폭력들』. 서울: 모시는사람들.
이호진·정민섭. 2020.「평화도시 인천: 평화자산 기초조사 보고서」. 인천광역

시.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2.「평화의 벗, 인천난정평화교육원(리플릿)」.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_____. 2023.「202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운영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_____. 2024.「2024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운영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장세룡. 2018.『도시와 로컬리티 공간의 지형도』. 서울: 한울아카데미.
정주진. 2019.「평화학의 시각으로 본 평화·통일교육」. 제7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및 평화.통일교육 컨퍼런스(2019년 5월 20일) 발표자료.
정호성. 2022.「지역의 통일교육 운영 사례」. 통일과 평화 14(2): 507-520.
조정아·김엘리·문아영·윤보영. 2019.『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차승주·김훈일. 2020.「시·도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정책 평가: 서울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5): 1365-1380.
한홍구. 2009.『한홍구와 함께 걷다』. 서울: 검둥소.
해리스, 이안(Harris, Ian M.). 2022. "평화교육의 역사." 모니사 바쟈즈 엮음, 권순정·오덕열·정지수 옮김.『평화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리다』. 서울: 살림터. 33-46.
해리스·모리슨(Harris, Ian M., Morrison, Mary L.). 2011. 박정원 옮김.『평화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세계를 위한 비전』. 서울: 오름.
황복순·이지윤. 2020.「일러스트로 살펴본 인천의 남북교류 역사: 인천, 통일을 그리다」.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202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주요업무계획 2024』. https://contents.gwedu.go.kr/eBook/ebookViewer/2Tz3juo47yQ(검색일: 2024년 9월 22일)
UNESCO. 1945.「헌장 비공식 국문 번역본」. https://unesco.or.kr/wp-content/uploads/2024/07/%EC%9C%A0%EB%84%A4%EC%8A%A4%EC%BD%94-%ED%97%8C%EC%9E%A5%EA%B5%AD%EB%AC%B8.pdf(검색일: 2024년 9월 1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 "늘봄학교 전담 행정실무사 배치… 스포츠·예술교육 확대할 것." 경인일보. 2024. 7. 10. http://www.kyeongin.

com/main/view.php?key=20240711010001316(검색일: 2024년 9월 18일)

"인천난정평화교육원, 한반도 '평화교육 허브기관' 꿈꾼다." 인천일보. 2022. 7. 10.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2127(검색일: 2024년 9월 18일)

"인천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 2024 제1차 평화교육 포럼 성료." 한국강사신문. 2024. 6. 7.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12(검색일: 2024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난정평화교육원(https://www.ice.go.kr/peace)

국립통일교육원(https://www.uniedu.go.kr)

한국DMZ생명평화동산(https://www.dmzecopeace.com)

국 문 초 록

‘인천형 평화교육’의 정의와 사례: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김진환(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이 글의 목표는 ‘인천형 평화교육’을 정의해 본 뒤, ‘인천형 평화교육’에 부합하도록 현행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인천형 평화교육은 한반도 평화교육의 일환답게 한반도 평화교육의 주안점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이 벌인 지정학적 갈등의 본무대(本舞臺),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쟁 트라우마를 증언하는 도시, 통일로 바닷길을 다시 열고 삶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도시 같은 인천의 평화 관련 로컬리티를 내재한 평화교육이다. 난정평화교육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주변 열강의 ‘지정학적 갈등’과 ‘분단’이 코리안이 경험하는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평화통일 노력이 분단폭력과 지정학적 폭력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가자들이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요소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19세기 후반 한반도 주변 열강이 벌인 지정학적 갈등의 본무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희망을 기억하는 도시 같은 로컬리티까지 포괄적으로 품어나가야 한다.

주제어: 평화교육, 한반도 평화교육, 인천형 평화교육, 난정평화교육원, 로컬리티

Abstract

Definition and Case of "Incheon-type Peace Education": Focusing on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cheon Nanjeong Peace Education Center Progam

Kim, Jin-hwan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define "Incheon-type peace education" and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current Incheon Nanjeong Peace Education center program such that it conforms to the Incheon-type peace education. Incheon-type peace education, which constitutes the Korean Peninsula peace education, primarily pursues Korean Peninsula peace education while simultaneously embodies Incheon's peace-related locality, such as the main stage for geopolitical conflicts among the dominatin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th century, which is a city that (i) remembers the tribulation and hope of the Korean diaspora, (ii) testifies to the "unfinished war" and war trauma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ii) can reopen sea routes through unification and provide the foundation for life. The Incheon Nanjeong Peace Education Center program requires two major improvements. First, the educational elements should be supplemented such that the program participants recognize that the "geopolitical conflicts" and "division" of the dominatin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main contributors to the violence experienced by Koreans, and that efforts for peaceful unification will reduce "division violence" and "geopolitical violence." Second, the program must comprehensively embrace localities

such as the city that was the main stage for geo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dominatin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one that remembers the tribulation and hope of the Korean diaspora.

Key words: Peace education, Korean Peninsula peace education, Incheon-type peace education, Incheon Nanjeong Peace Education Center, locality